

中·韓 ‘성취’유형과 미완료상표지 간의 결합대조*

崔圭鉢**

<목 차>

1. 서론
2. 미완료상표지
 - 2.1 중국어의 ‘在’
 - 2.2 한국어의 ‘-고 있-’
3. 성취유형
 - 3.1 의미자질
 - 3.2 내부시간구조
4. ‘가다’류 동사의 역할
 - 4.1 ‘가다’류 동사의 시간의미
 - 4.2 ‘가다’류 동사와 미완료상표지 간의 관계
5. 결론

1. 서론

전형적인 ‘미완료상표지(imperfective aspect marker)’라 알려진 영어의 ‘be-ing’는 그 해석에 있어 흔히 한국어의 ‘-고 있-’이나 중국어의 ‘在’에 대응되어 왔다. 그러나 다음 예문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들 상표지가 ‘성취(achievement)’동사인 ‘죽다’와 함께 결합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영어는 정문이 되는데 반해, 한국어나 중국어의 경우에는

www.kci.go.kr

* 본 논문은 2012년도 고려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高麗大學校 中語中文學科 教授.

비문이 된다는 것이다.¹⁾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비문이었던 예문 (1b)와 (1c)에 ‘가다’라는 의미의 ‘이동동사’가 함께 결합하게 되면 이들은 모두 정문이 된다는 것이다(예문 (2) 참조).

- (1) a. [영어] He is dying.
- b. [한국어] *그가 죽고 있다.
- c. [중국어] *他在死.
- (2) a. [한국어] 그가 죽어가고 있다.
- b. [중국어] 他在死去。(그가 죽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결합 상에서의 차이가 야기되는 원인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가능성을 제시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각각의 상표지가 ‘성취’동사와 결합할 때 반응하게 되는 구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죽다’류의 동사가 지니고 있는 내부시간구조가 언어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전형적인 미완료상표지에 속하는 영어의 ‘be-ing’와 비교하여 중국어의 ‘在’나 한국어의 ‘-고 있-’이 지니고 있는 상적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며, 다음으로 여섯 가지 ‘상황유형(situation types)’²⁾들 중에서도 특히 ‘죽다’류의 동사가 속해있는 ‘성취’유형의 내부시간구조와 의미자질에 대해 분석해 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성취’동사와 미완료상표지 간의 어떠한 내부관계가 위와 같은 결합 상의 차이를 야기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밝혀보고자 한다.

2. 미완료상표지

1) 본고의 논의대상은 주어가 단수일 경우로 제한한다.

2) Xiao&McEnergy(2004:59)는 상황유형을 ‘활동(activity)’, ‘순간활동(semelfactive)’, ‘성취(achievement)’, ‘완수(accomplishment)’, ‘ILSs’ 그리고 ‘SLSs’로 구분하고 있다.

Smith(1997:63-64)에서는 '가시성(visibility)'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관점상(viewpoint aspect)'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곧 화자가 상표지를 통해 주어진 상황 중에서 자신이 드러내고자 하는 부분을 가시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상황 전체를 분해할 수 없는 하나의 '점'으로써 드러내는가, 아니면 끝점에 대한 어떠한 언급 없이 상황 내부의 일부구간만을 드러내는가에 따라 다시 '완료상(perfective aspect)'과 '미완료상(imperfective aspect)'으로 나뉜다.

영어의 'be-ing'는 전형적인 미완료상표지으로써 대상이 되는 상황 내부의 일부구간만을 가시화시킨다. 흔히 중국어의 '在'와 한국어의 '-고 있-'이 이에 대응되며, 본장에서는 각각 이들의 상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1 중국어의 '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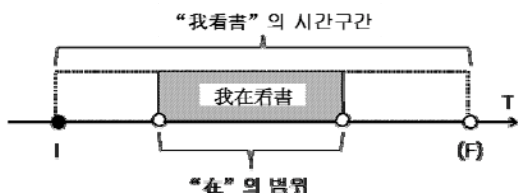
흔히 '진행상(progressive aspect)'이라 알려진 '在'는 현대 중국어에서 대표적인 미완료상표지로 쓰인다. 陳前瑞(2008:228)는 오직 동사 뒤에 출현하는 '着'만을 미완료상표지로 간주하고, '在'는 여기서 '呢'와 함께 진행상표지로 따로 분류하여 미완료상표지와 진행상표지를 서로 구분하였다. Smith(1991, 1997) 이래로 많은 학자들은 관점상을 크게 완료상과 미완료상으로 양분하였으며, 이때 진행상은 미완료상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진행상이 미완료상에 속한다는 사실은 다음 예문 (3)의 내부시간구조를 통해서도 더욱 분명해 질 수 있는데, 즉 '看書'는 [+동태성(dynamic)], [+지속성(durative)], [-제한성(telic)], [-경계성(bounded)]의 의미자질을 지니고 있는 '활동(activity)' 유형의 동사이며, 다음 [그림1]과 같은 내부시간구조를 지닌다. 이때 'I'는 시작점이며, '(F)'는 임의의 종결점을 의미한다.³⁾ 우리는

3) Smith(1991:29)에 따르면, [+제한성]의 상황유형은 '자연적 종결점(natural final point)'을 지니는데 반해, [-제한성]의 상황유형은 '임의의 종결점(arbitrary final point)'을 지닌다고 하였다.

[그림1]을 통해, “我看書”가 형성하고 있는 전체 시간구간 중에서 진행상표지 ‘在’는 상황 내부의 일부구간 만을 가시화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즉, [그림1]에서 음영부분), 그에 따라 ‘在’ 또한 전형적인 미완료상표지라 간주할 수 있다.

(3) 我在看書。(난 책을 보고 있다) (CCL corpus)⁴⁾



[그림1] “我在看書”의 내부시간구조

대체로 ‘在’는 [+동태성], [+지속성]의 자질을 지니고 있는 사건들과 결합하여 ‘동작행위가 진행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在’가 [-동태성]의 상황유형과는 공기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在’에 의해 드러나는 ‘동태성’이 [-동태성]의 자질을 지니는 ‘상태문’과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다음 예문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부 상태문들은 ‘在’와 결합하여 정문이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 Yang(1995:126)은 예문 (4)의 경우에는 화자가 청자에게 ‘일시적인 기분(temporary feeling)’에 대해 묻고 있는 경우로써, 이는 곧 ‘의미의 변화가 이루어진 상태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태적인 의미를 내포한다고 하였다. 또한 Xiao&McEnergy (2004:209)에서도 ‘在’가 [-동태성]의 자질을 지니는 ILSs와는 결합할 수 없으나, ‘하나의 사건과도 같은(more event-like)’ SLSs는 일정한 동태성을 지니고 있기에 ‘在’와의 결합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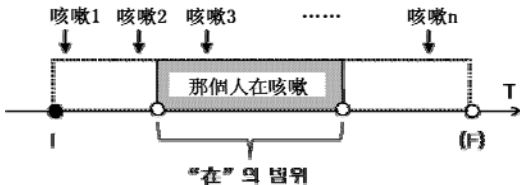
4) http://ccl.pku.edu.cn:8080/ccl_corpus/index.jsp

(4) 你還在恨我嗎? (넌 아직도 날 원망하니?) (Yang 1995)

뿐만 아니라 '在'는 [-지속성]의 상황유형과도 결합할 수 없는데, 이는 앞서 [그림1]에서 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이, 미완료상표지로서 '在'는 반드시 대상이 되는 상황 내부의 일부구간 만을 가시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지속성]의 상황유형은 '在'가 가시화할 수 있는 내부시간구간이 존재하지 않기에 서로 공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예문 (1b)에서 '死'는 [-지속성]의 자질을 지니고 있는 '성취'유형의 동사이기에 '在'가 가시화할 수 있는 내부시간구간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결합이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동일하게 그 자체로는 [-지속성]의 자질을 지니고 있는 '순간활동'유형은 미완료상표지와 결합에 있어 '성취'유형과는 다른 특수한 공기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 '기침하다'라는 의미의 중국어 동사 '咳嗽'는 [+동태성], [-지속성], [-제한성], [+경계성]⁵⁾의 자질을 지니고 있는 '순간활동(semelfactive)' 유형이며, 만약 해당 동사가 다음 예문 (5)에서와 같이 미완료상표지 '在'와 결합하게 될 경우, 이는 '단일사건'이 아닌 '반복사건'을 지시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이 문장은 [그림2]와 같은 내부시간구조를 지니게 된다.

(5) 那個人在咳嗽。(그 사람이 기침을 하고 있다) (CCL코퍼스)



[그림2] “那個人在咳嗽”의 내부시간구조

5) Xiao&McEnery(2004:59)는 '순간활동'이 [+경계성]의 자질을 지닌다고 주장하였지만, 본문에서의 '咳嗽'는 동사 그 자체로는 결코 반복되지 않은 '단일 사건'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므로 [+경계성]의 자질로 간주하는 것이 옳다.

다시 말해, 미완료상표지 ‘在’와 결합한 ‘순간활동’유형은 ‘반복’의 의미가 형성되었고, [-지속성]의 자질을 지니고 있던 단일사건이 곧 [+지속성]의 자질을 지닌 복합사건으로 변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미완료상표지 ‘在’가 가시화할 수 있는 내부시간구조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중국어의 ‘在’는 영어의 ‘be-ing’와 마찬가지로 상황 내부의 일부구간만을 가시화시키는 미완료상표지로서의 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한국어의 ‘-고 있-’

한국어에서의 상표지는 흔히 형식 형태소인 ‘보조적 연결 어미’와 ‘보조 동사 어간’ 간의 결합에 의해 형성된다고 알려져 왔다. 김성화(2003:146)에 따르면, 이는 크게 동적 상황의 움직임이 종결점을 향해 나아가는 ‘지속상’과 지속의 과정을 거쳐 종결점에 이른 ‘종결상’으로 나뉘게 된다. 일반적으로 전자의 경우에는 시작점이나 종결점에 대한 어떠한 언급 없이 오직 내부시간구간만을 가시화시키는 미완료상표지의 성격을 지니는데 반해, 후자의 경우에는 종결점이 언급된 완료상표지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영어나 중국어에서 전형적인 미완료상표지라 일컬어지고 있는 ‘be-ing’와 ‘在’는 대체로 한국어의 ‘-고 있-’과 유사하게 대응된다. 그러나 다음 예문 (6)과 같이 ‘-고 있-’이 ‘입다’류의 동사들과 함께 결합하게 되면 “입고 있는 중이다”라는 내부시간구간을 드러내거나(즉, 예문 (6a)), 혹은 “입고 있는 상태이다”라는 종결점 이후의 결과상태구간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즉, 예문 (6b)), 이러한 이중적 해석현상에 대해 김성화(1990), 한동완(1999), 박덕유(2007) 등에서는 이들 ‘-고 있-’의 성격을 ‘-고₁ 있-’과 ‘-고₂ 있-’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단순지향성 진행을 나타내는 ‘-고₁ 있-’은 예문 (6a)에서와 같이 미완료상표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해당 사건의 내부시간구간을 가시화시키지만, 예문 (6b)에서와 같이 종결점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결과성 종결을 의미하게 되는 '-고₂ 있-'의 경우에는 완료상표지에 속하게 되어, 이들 간의 결합은 곧 결과상태구간을 지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 (6) 영화는 옷을 입고 있다.
 - a. "Young-Hee is putting on the clothes"
(옷을 입고 있는 과정 강조)
 - b. "Young-Hee is wearing the clothes"
(옷을 입고 있는 상태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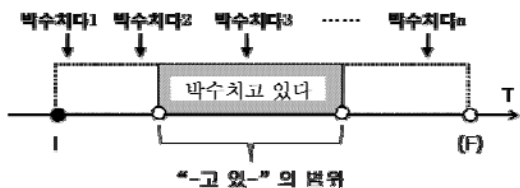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는 위와 같은 문제를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즉 상표지와 결합하는 동사 자체의 본유적 자질이 의미의 차이를 야기한다고 보는 것이다(이남순 1981:55, 오충연 2006:128-129 등). 이는 예문 (6)의 영문 번역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영어의 경우 전형적인 미완료상표지에 속하는 'be-ing'의 가시화구간이 오직 내부시간구간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 다른 의미를 드러내면서도 모두 정문이 되기 위해서는 "옷을 입고 있는 중이다"라는 의미를 드러낼 '활동'유형의 *put on*과 "옷을 입고 있는 상태이다"라는 의미를 드러낼 '상태'유형의 *wear*이 각각 사용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위와 같은 분석은 한국어에도 동일하게 적용시켜 볼 수 있는데, 즉 예문 (6)에서 '입다'라는 동사는 '활동'유형의 '입다₁'과 '상태'유형의 '입다₂'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입₁고 있다'는 "옷을 입고 있는 중이다"라는 의미를 드러내며, '입₂고 있다'는 "옷을 입고 있는 상태이다"라는 의미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고 있-'은 다음 예문 (7)에서와 같이 [-지속성]의 자질을 지니고 있는 '성취'유형과 함께 결합할 수 없는데, 이는 중국어의 미완료상표지 '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상이 되는 상황의 내부시간구간 만을 가시화시키는 미완료상표지 '-고 있-'은 [-지속성]의 자질로 인해 내부시간구간을 지닐 수 없는 '성취'유형과 서로 공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 (7) a. *그가 죽고 있다. [[(1a)와 중복]
 b. *돈을 잃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중국어의 ‘순간활동’유형이 미완료상표지 ‘在’와 결합하여 ‘반복’ 의미의 복합사건을 형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어의 ‘순간활동’유형 또한 미완료상표지 ‘-고 있-’과 결합하여 ‘반복’의 의미를 지닌 복합사건으로 변화한다. 예를 들어 다음 예문 (8)의 동사 ‘박수치다’는 [+동태성], [-지속성], [-제한성], [+경계성]의 자질을 지니고 있는 ‘순간활동’유형에 속한다. ‘박수치다’라는 동사 그 자체는 [-지속성]의 자질을 지니고 있지만, 다음 예문 (8)에서와 같이 해당 동사가 미완료상표지 ‘-고 있-’과 함께 결합하게 될 경우, 이는 ‘단일사건’이 아닌 ‘반복’의 의미를 드러내는 ‘복합사건’을 지시하게 되고, 해당 문장은 곧 [그림3]과 같은 내부시간구조를 지니게 된다.

- (8) 박수를 치고 있었다. (국립국어원 말뭉치)⁶⁾



[그림3] “박수치고 있었다”의 내부시간구조⁷⁾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중국어의 ‘在’나 한국어의 ‘-고 있-’의 경우, 영어의 ‘be-ing’와 마찬가지로 모두 대상이 되는 상황의 일부구간만을 가시화시키는 전형적인 미완료상표지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예문 (1)의 차이를 야기하게 된 원인으로 첫 번째 가능성은 설득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다음

6) <http://ithub.korean.go.kr/jsp/dic/example/simplesearch.jsp>

7) “박수치고 있었다”의 ‘-었-’은 과거시제표지으로써 동작행위가 발화시간 이전에 발생하였음을 드러내지만, 본고의 논의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림3]에 따로 표시하지 않았다.

장에서 우리는 '죽다'류의 동사가 속해있는 '성취'유형의 내부시간구조와 의미 자질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한국어, 중국어 그리고 영어에서 위와 같은 차이가 야기된 근본적인 원인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밝혀보고자 한다.

3. 성취유형(achievement)

3.1 의미자질(semantic features)

최근 '상황상(situation aspect)'은 상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로 떠올랐으며, 이에 따라 상황상을 구성하는 다양한 '동작류(aktionsart)'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다. 상황상은 동사나 상황을 의미자질에 따라 상적으로 분류한 것으로써, 이러한 의미자질은 해당 동사나 상황이 어떻게 '상'이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Xiao&McEnergy 2004:21-22).

그 중에서도 특히 '성취'유형이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의미자질로는 [+동태성], [-지속성], [+제한성]이 있으며, 이는 곧 '성취'유형이 상태의 변화를 야기하는 순간적인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Smith 1991, 1997; Yang 1995; Xiao&McEnergy 2004). 다시 말해, '성취'유형이 지니고 있는 [+동태성]의 자질은 이 유형이 일정한 변화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며, [-지속성]의 자질은 동작행위가 순간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제한성]의 자질은 '성취'유형이 명확한 종결점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종결점이란 쉽게 말해 동작행위가 끝나는 순간에 해당하는 시점으로, 흔히 '성취'유형이나 '완수'유형과 같이 [+제한성]의 자질을 지니고 있는 동사들이 지니고 있다고 알려져 왔다.

Tenny(1994:24-26)는 '한계성(delimitednes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다음 예문 (9)와 예문 (10)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eat*(먹다)와 같은 동사들은 목적어가 공간영역 안에서 한계성을 지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건 자체가 한계성을 지닐 수도 혹은 비한계성을 지닐 수도 있으며, 예문 (9)와 같이 가산명사 *an apple*(사과 하나)을 목적어로 취할 경우에는 [+한계성]을 지니지만, 예문 (10)에서와 같이 복수명사나 불가산명사인 *apples*(사과들), *ice cream*(아이스크림) 등을 목적어로 취하는 경우에는 [-한계성]의 자질을 지닌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러한 한계성을 다시 ‘공간적인 한계성(spatially delimited)’과 ‘시간적인 한계성(temporally delimited)’으로 나누었으며, 이 두 개념은 각각 ‘공간영역’과 ‘시간영역’에 속하는 동일한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본고에서 말하는 ‘제한성’은 Tenny(1994)의 ‘공간적인 한계성’에 해당되는 개념이며, ‘시간적인 한계성’의 경우에는 ‘경계성(bounded)’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9) Chuck ate an apple (*for an hour / in an hour).⁸⁾

(척이 사과 하나를 한 시간 만에 먹었다)

(10) a. Chuck ate ice cream (for an hour / *in an hour).

(척이 아이스크림을 한 시간 동안 먹었다)

b. Chuck ate apples (for an hour / *in an hour).

(척이 사과들을 한 시간 동안 먹었다)

(Tenny 1994:24)

Xiao&McEnery(2004:50-51)에서도 ‘종결점(endpoints)’을 다시 ‘시간적 종결점(temporal endpoints)’과 ‘공간적 종결점(spatial endpoints)’으로 나누어 ‘제한성(telicity)’은 ‘공간적 종결점’을 지닌 공간영역 안의 개념이며, ‘경계성(boundedness)’은 ‘시간적 종결점’을 지닌 시간영역 안의 개념이라 주장하였다. 이는 각각 Tenny(1994)의 ‘공간적 한계성’과 ‘시간적 한계성’에 해당되는

8) 여기에서 *for an hour*(한 시간 동안)과 *in an hour*(한 시간 만에)는 Vendler(1967:100-101)에서 제시된 [+제한성]의 자질유무여부를 결정하는 판정방법으로써, *for an hour*는 [-제한성]의 상황과 결합하며, *in an hour*는 [+제한성]의 상황과 결합하여 정문을 형성한다.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제한성]은 항상 [+경계성]의 의미는 내포하는데 반해,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취'와 '완수'유형은 모두 '공간적 종결점'을 지니고 있어, [+제한성]과 [+경계성]의 의미자질을 지니고 있는데 반해, 이 둘은 [±결과(result)]의 자질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초기 상 연구에서는 [±결과]의 의미자질이 상황 유형을 분류하는데 있어 하나의 기준으로 정립되지 않았기에, Smith(1991, 1997)는 [+제한성]의 의미자질이 곧 [+결과]에 이르는 종결점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간주하였다. 그러나 Xiao & McEnergy(2004:47-52)는 제한성과 결과의 의미자질을 서로 구분하여, '공간적 종결점'의 존재와 관련된 [+제한성]의 의미자질이 반드시 [+결과]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성취'유형의 경우에는 동사 그 자체가 결과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기에 [+결과]의 자질을 지니는데 반해, '완수'유형의 동사는 결과의 의미를 내포만 할 뿐이며, 진정한 결과의 의미는 후속적으로 등장하는 NP·PP논항 등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고 하여 '완수'동사에는 [-결과]의 자질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결과]의 의미자질은 상황상 분석에 있어 서술어 자체만을 다루는 '핵심단계(nucleus)'의 개념이기에, 본고의 논의대상인 '절단계(clause level)'의 '성취'유형을 분석하는 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⁹⁾ 본고에서는 다음 [표1]에서와 같이 Xiao & McEnergy(2004)의 의미자질 중에서 [±결과]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의미자질을 통해 '성취'유형을 판단하도록 하겠다.

	[±동태성]	[±지속성]	[±경계성]	[±제한성]
성취	+	-	+	+

[표1] '절단계'의 '성취'유형이 지니는 의미자질

9) Xiao & McEnergy(2004:33, 60)에 따르면, 문장단계의 '상황상'은 동사 자체와 보어, 논항 그리고 비논항 성분들 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라 하였다. 그에 따르면, '핵심단계(nucleus)'는 서술어 자체만을 다루며, '중심단계(core)'는 서술어와 논항들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절단계(clause)'는 서술어와 논항 그리고 비논항 성분 모두를 다루고 있다.

3.2 내부시간구조

우리는 흔히 *reach the hilltop*(언덕정상에 도달하다), *win the race*(레이스에서 이기다), *recognize something*(무언가를 알아보다) 등과 같이 순간적으로 행해지는 동작행위를 ‘성취’유형이라 부른다(Vendler 1967:102-103, Dowty 1979:58-60 등). 일반적으로 ‘성취’유형은 다음 (11)에서와 같이 시작점(I)과 종결점(F)이 동시에 출현하여 하나의 변화점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R’은 상태의 변화를 지시하게 된다. 또한 앞뒤의 점선은 각각 ‘예비단계(preliminary stages)’와 ‘결과상태단계(resultant stages)’를 의미하는데, 이들은 사건 그 자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11) ‘성취’유형의 시간도식 : I (R) (Smith 1991:58)
F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모든 ‘성취’동사들이 예비단계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reach the hilltop*(언덕정상에 도달하다)의 경우에는 동작행위가 실현되기 위한 예비단계가 필수적이지만, *recognize something*(무언가를 알아보다)의 경우에는 예비단계가 없거나, 만약 있다하더라도 매우 순간적이어서 인간이 인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때로는 해당 동사가 어떠한 목적어를 취하고 있는가에 따라라도 예비단계의 유무가 결정되는데, 예를 들어 동사 *win*(이기다)의 경우 후속적으로 *the race*(레이스)가 출현하여 *win the race*라는 문장을 형성하게 되면 예비단계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지만, *the toss*(동전던지기)가 출현하여 *win the toss*를 형성하게 될 경우에는 예비단계가 출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동사에 어떠한 부사들이 함께 결합하고 있는가에 따라라도 예비단계의 유무가 결정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순간적인 동작행위의 출현을 의미하는 *instantly*(순식간에)나 *suddenly*(갑자기) 등의 부사가 일부 ‘성

취'동사들과 함께 결합하게 되었을 경우 이들의 예비단계는 출현을 보장받을 수 없는데 반해, 이들이 *slowly*(천천히)나 *gradually*(점차적으로) 등과 같은 부사와 함께 결합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부사들이 해당 동사의 예비단계를 수식하게 된다. '성취'유형에 속하는 수많은 동사들은 이와 함께 출현하는 목적어나 부사들의 영향을 받아 예비단계의 유무가 결정되기 때문에, 본고의 논의대상은 '절단계'에서의 '성취'유형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영어의 '성취'유형들은 예비단계의 출현여부에 따라 다음 예문 (12)에서와 같이 미완료상표지와 결합에 있어서도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와 같이 예비단계가 존재하는 '성취'유형을 '성취A'라 하고, 예비단계가 존재하지 않는 후자의 '성취'유형을 '성취B'라 부르도록 하겠다.

- (12) 영어 (Brinton 1988/2009:41)
- a. [성취A] He is dying.
 - b. [성취B] *She is recognizing a friend here.

예문 (12a)에서 동사 *die*(죽다)는 예비단계가 존재하는 '성취A'이며, 해당 동사와 미완료상표지의 결합은 현재 '죽음'이라는 정점을 향해 다가가는 예비과정의 진행을 지시하게 되지만, (12b)에서와 같이 동사 *recognize*(알아채다)의 경우에는 예비단계가 존재하지 않는 '성취B'에 속하며, 그에 따라 일정한 지속구간을 필요로 하는 미완료상표지와 결합이 비문을 형성할 수밖에 없게 된다.

- (13) 한국어
- a. [성취A] *그가 죽고 있다.
 - b. [성취B] *그가 그의 친구를 알아채고 있다.

- (14) 중국어
- a. [성취A] *他在死.
 - b. [성취B] *他在認出他的親人.

이에 반해 한국어나 중국어의 '성취' 유형은 예문 (13), (14)에서와 같이 예비 단계의 유무여부가 미완료상표지와와의 결합에 있어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은 채 모두 비문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영어의 '성취A'와는 달리 한국어나 중국어의 '성취A'는 그 '예비단계'가 비교적 모호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는 제4장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한국어나 중국어의 '성취A' 유형에서 '가다'류 동사¹⁰⁾의 출현이 모호했던 예비단계를 보다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미완료상표지와와의 결합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증명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한국어, 중국어 그리고 영어가 예문 (1)에서와 같이 결합 상의 차이를 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미완료상표지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결합하였던 '성취' 동사 자체에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이는 다음 [표2]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성취A			성취B
	영어	한국어	중국어	영어, 한국어, 중국어
예비단계	○	△	△	X
미완료상표지와와의 결합	○	X	X	X

[표2] '성취A'와 '성취B'의 차이

4. '가다'류 동사의 역할

'성취' 유형은 예비단계의 존재여부에 따라 다시 '성취A'와 '성취B'로 나뉘며, 오직 명확한 예비단계를 지니고 있던 영어의 '성취A'만이 미완료상표지와와의 결합에 있어 정문을 형성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한국어와 중국어의

10) 본고에서 말하는 <가다'류 동사>는 한국어의 '가다'와 중국어의 '去'를 모두 지시한다고 가정한다.

'성취A'는 예비단계가 존재하긴 하지만 매우 모호하여 예문 (2)에서와 같이 '가다'류 동사가 함께 출현해야 비로소 정문이 될 수 있었다. 본장에서는 '가다'류 동사가 지니고 있는 시간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과 '성취'유형의 결합이 어떠한 내부구조를 생성함으로써 미완료상표지와와의 결합을 가능하게 하였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4.1 '가다'류 동사의 시간의미

먼저 '가다'라는 동사는 본래 공간영역에서 '장소의 이동'을 드러내는 '이동동사'이다. 즉, 화자의 위치가 '직시적 중심(deictic center)'¹¹⁾이 되어, 이로부터 대상이 점차 멀어지고 있는 동작행위를 지시한다는 것이다. 다음 예문 (15)는 '가다'라는 이동동사가 문장의 서술어로 출현하게 됨에 따라, '직시적 중심'인 화자의 현재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논의의 대상인 '나'가 먼 곳에 위치한 터미널을 향해 점차 멀어져 가는 동작행위를 드러내고 있다.

(15) 나는 터미널쪽으로 서둘러 간다. (국립국어원 발뭇치)

이러한 이동동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간영역에서 '장소의 이동'이란 의미가 점차 시간영역에서 '동작의 계속'이란 의미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때 '직시적 중심'은 화자의 시간적 위치인 '현재'가 담당하게 된다. 다시 말해, '과거-현재-미래'로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화자는 '현재'에 위치하게 되고,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동작행위의 지속성을 '가다'라는 동사로써 표현하게 된다는 것이다(이기동 1977:141, 이성하 2006:307 등). 예를 들어, 다음 예문 (16)의 경우에는 현재에도 자신의 수입으로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

11) Lichtenberk(1991:480)에 따르면, '직시적 중심'이란 대체로 화자가 중심인 '화자의 위치'이거나 혹은 발화시간에 해당된다. 그러나 다른 위치나 다른 시간이 '직시적 중심'이 되기도 한다.

게 살아갈 것임을 의미한다.

(16) 경제적으로도 자신의 수입으로 살아갈 수 있다. (국립국어원 발문치)

이와 같은 현상은 중국어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다’라는 한국어에 대응되는 중국어에는 ‘去’가 있으며, 그 의미는 화자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의 이동을 의미한다고 알려져 있다(呂叔湘 1980/2008:455). 동사 ‘去’는 예문 (17a)에서와 같이 본래 단독으로 사용되어 공간의 이동을 드러내었는데, 점차 ‘문법화(grammaticalization)’를 거치게 됨에 따라 예문 (17b)에서와 같이 동사 뒤에 출현하여 본동사의 의미를 보충하는 보어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17) a. 他們去大英圖書館。(그들은 대영제국도서관으로 간다)

b. 沿着一條小路就一直往前走去了。

(작은 길을 따라 바로 쪽 앞으로 걸어 갔다)

(CCL코퍼스)

단순방향보어로써 ‘去’는 시간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종종 ‘上’이나 ‘下’와 결합하여 ‘上去’, ‘下去’의 복합방향보어를 형성하게 된다.¹²⁾ 특히 ‘下去’의 경우에는 공간영역에서의 ‘내려가다’라는 의미가 다시 시간영역에서 ‘계속되다’라는 의미로 발전하게 된다. 예를 들어 예문 (18a)에서의 ‘下去’는 공간영역 안에서 주어인 ‘他’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공간적 이동을 하였음을 드러내는데 반해, (18b)에서의 ‘下去’는 시간영역 안에서 주어인 ‘我’의 현재 상태 혹은 동작행위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임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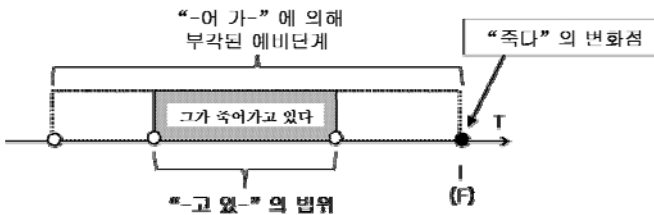
12) Radden(2004:228-229)은 이처럼 중국어의 ‘上’과 ‘下’가 ‘가다’라는 의미의 ‘去’와 함께 쓰여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는 데에는 이들의 시축이 ‘위-아래’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언어에 따라 시축은 ‘앞-뒤’, ‘위-아래’ 혹은 ‘왼쪽-오른쪽’으로 형성되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어는 ‘위-아래’로 이어진 시축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는 ‘위’에 위치하는데 반해 ‘미래’는 ‘아래’에 위치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현재에서 미래로 이동하는 중국어의 시간 의미는 주로 ‘下去’가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 (18) a. 他朝平原走下去。(그는 평원으로 걸어 내려 간다)
 b. 我想活下去! (나는 살아 가고 싶다) (CCL코퍼스)

4.2 '가다'류 동사와 미완료상표지 간의 관계

'가다'류 동사 그 자체는 [+동태성], [+지속성], [-경계성] 그리고 [-제한성]의 의미자질을 지니고 있는 '활동'유형에 속한다. 이들 동사가 한국어나 중국어의 '성취'동사와 결합하게 되면, 해당 동사의 예비단계를 보다 부각시켜 결국 미완료상표지와의 결합을 가능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예문 (2a)(즉, 예문 (19))의 경우에는 다음 [그림4]와 같은 내부구조를 형성하게 되는데, 즉 '가다'에서 파생된 '-어 가-'의 출현이 '성취'동사인 '죽다' 앞에 위치하던 모호한 예비단계를 보다 부각시키게 되었고, 그에 따라 '죽다'와 '-고 있-'의 결합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 (19) [한국어] 그가 죽어가고 있다. ((2a)와 중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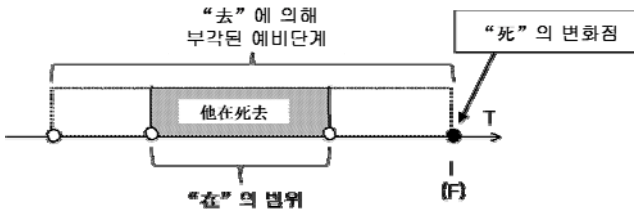


[그림4] "죽어가고 있다"의 내부시간구조

중국어의 경우에도 또한 '성취'유형의 동사 '死'가 지니고 있던 모호한 예비단계가 '가다'라는 의미의 보어 '去'와 결합하여 '死去'를 형성하게 되면서 보다 선명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다음 [그림5]와 같이 미완료상표지 '在'와 결합할 수 있는 내부시간구간을 형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 [중국어] 他在死去。

[(2b)와 중복]



[그림5] “他在死去”의 내부시간구조

이처럼 '가다'류 동사는 한국어나 중국어의 '성취A'가 지니고 있었던 모호한 예비단계를 보다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이 미완료상표지와 결합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예비단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성취B' 동사들이 미완료상표지와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Brinton(1988/2009:41)에 따르면, '성취B'유형에 속하여 미완료상표지와 결합할 수 없었던 예문 (12b)와 같은 경우, 다음 (2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만약 동사의 목적어 *a friend*(한 친구)를 *many of her friends*(그녀의 많은 친구들)로 대체하여 '반복'의 의미를 생성하게 한다면 해당 문장이 정문이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21) *She is recognizing a friend here.

[(12b)와 중복]

(22) She is recognizing many of her friends here.

(그녀는 여기서 그녀의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있다)

(Brinton 1988/2009)

이는 한국어나 중국어의 경우에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한국어의 '발견하다'나 중국어의 '發射' 모두 예비단계가 존재하지 않는 '성취B'유형의 동사이며, 만약 여기에 단수목적어가 출현하게 된다면 해당 문장은 비문이 되지만, 다음 예문 (23), (24)에서와 같이 복수목적어가 출현하여 '반복'의 의미를 형성하게 된다면 곧 정문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23) 저녁의 어두운 창밖과 밤의 낮은 정거장들을 자주 서성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었다. (국립국어원 말뭉치)
- (24) 它必須正在發射出大量的伽瑪射線和X射線。 (그것은 반드시 대량의 감마선과 엑스광선을 내고 있어야만 한다) (CCL코퍼스)

5.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영어의 미완료상표지 'be-ing'에 대응되는 한국어의 '-고 있-'과 중국어의 '在'가 '성취'유형과 결합함에 있어 일정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어의 '-고 있-'과 중국어의 '在'는 모두 동일하게 대상이 되는 상황의 일부구간만을 가시화시키고 있으므로 영어의 'be-ing'와 함께 전형적인 미완료상표지라 할 수 있었으며, 그에 따라 예문 (1)의 차이는 미완료상표지와 결합하는 '성취'동사 자체의 문제일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성취'유형은 예비단계가 존재하는 '성취A'와 예비단계가 존재하지 않는 '성취B'로 나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영어의 '성취A'는 명확한 예비단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한 지속구간을 필요로 하는 미완료상표지 'be-ing'와의 결합에 있어 문제될 것이 없었으나, 한국어나 중국어의 '성취A'는 해당 예비구간이 비교적 모호하여 그 자체로는 미완료상표지와 결합할 수 없었으며, 모호한 예비단계를 보다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가다'류 동사의 출현이 필요하였다. '성취B'유형의 경우에는 예비단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에 '가다'류 동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으며, 오직 복수목적어를 사용하여 해당 문장이 '반복'의 의미를 형성해야지만 비로소 미완료상표지와 결합이 가능하였다.

이처럼 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 한국어, 중국어 그리고 영어는 서로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도 하지만, 그만큼 차이점 또한 매우 다양하다. 현대 중국어에 있

어서 상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들과 한국어, 영어 간의 끊임없는 비교·대조를 통해 현대 중국어만의 독특한 상적 특성을 밝히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參考文獻>

- 김성화, 《현대국어의 상 연구》, 서울: 한신문화사, 1990.
- 김성화, 《국어의 상 연구》, 서울: 한신문화사, 2003.
- 박덕유, 《한국어의 相 이해》, 서울: 제이앤씨, 2007.
- 오충연, 《상과 통사구조》, 파주: 대학사, 2006.
- 이남순, <現代國語의 時制와 상에 대한 研究>, 《國語研究》46, 國語研究會, 1981.
- 이기동, <동사 ‘오다’, ‘가다’의 의미 분석>, 《말》 제2집,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977.
- 이성하, 《문법화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2006.
- 한동완, <‘고 있-구성’의 重義性에 대하여>, 《한국어 의미학》5, 한국어의미학회, 1999.
- 최규발, <현대중국어 상의 제 문제 고찰>, 《中國學論叢》15,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02.
- _____. 조경환, <把字句와 상>, 《중국언어연구》23, 한국중국언어학회, 2006.
- _____. 정지수, <한중 경험상 대조분석>, 《중국언어연구》25, 한국중국언어학회, 2007.
- _____. 박민아, <韓·中·日미완료상대조>, 제9차 코리아학국제학술토론회, 2009.
- Brinton, *The development of English Aspectual Syste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2009.
- Comrie, B., *Aspec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 Dowty, *Word meaning and Montague grammar*, Dordrecht: Boston: D. Reidel Pub. Co., 1979.
- Radden, G., “The metaphor TIME AS SPACE across languages”, In N.Baumgarten et al. (Eds.), *Übersetzen, interkulturelle Kommunikation, Spracherwerb und Sprachvermittlung-Das Leben mit Mehreren Sprachen:Festschrift für*

- Juliane House zum 60. Geburtstag, Bochum: Aks-verlag, 2004.
- Smith, C., *The parameter of aspect*(1st ed.), Dordrecht: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1.
- _____. *The parameter of aspect*(2nd ed.), Dordrecht: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7.
- Tenny, *Aspectual Roles and the Syntax-Semantics Interface*, Dordrecht: Boston: Kluwer Academic, 1994.
- Vendler, Z., *Linguistics in Philosophy*,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67.
- Xiao, R. · McEnery, T., *Aspect in Mandarin Chinese*, Philadelphia: J.Benjamins Pub, 2004.
- Yang, S., *The aspectual system of Chinese*, PhD thesis, University of Victoria, 1995.
- 呂叔湘, 《現代漢語八百詞(增訂本)》, 北京: 商務印書館, 1980/2008.
- 陳前瑞, 《漢語體貌研究的類型學視野》, 北京: 商務印書館, 2008.
- 劉月華 外, 《實用現代漢語語法(增訂本)》, 北京: 商務印書館, 2001.
- 徐 丹, <漢語里的“在”與“着(著)”>, 《中國語文》 第6期, 1992.

<中文摘要>

目前為止, 我們對英語的未完成體標記“be-ing”所對應的韓國語的“-고 있-”及漢語的“在”和“達成”類動詞結合後, 三者之間形成一定差異的原因進行了一番觀察。韓國語的“-고 있-”和漢語的“在”都同樣能使成為客體狀況的一部分時段可視化, 所以都可以把它們看成是和英語“be-ing”一樣的典型化的未完成體標記。因此我們可以得出這樣的結論, 例句(1)形成差異的原因是, 與未完成體標記結合的“達成”動詞本身的問題。換一句話來說, 也就是說“達成”類分為存在預備階段的“達成A”和不存在預備階段的“達成B”兩種, 其中特別是英語中的“達成A”因為很明顯地不存在於預備階段中, 所以需要和表示持續階段的未完成體標記“be-ing”結合才會沒有問題。韓國語和漢語的“達成A”所包含的預備階段比較模糊, 它們自己不能和未完成

體標記結合，所以需要和“去”類動詞結合，使之很鮮明地變得可視化。“達成B”類型的情況是，因為它們本身不存在預備階段，所以不能得到“去”類動詞的修飾，只有使用複數賓語表示該句具有反複的意思，才能和未完成相標記結合。

正因為對“體”進行這樣的研究，我們才能發現，雖然韓國語、漢語以及英語之間存在相似的地方，但它們之間的不同之處也呈現多樣化。現代漢語中存在與“體”有關的諸多問題，為了有效地解決這些問題，將來需要和韓國語、英語進行不斷的比較，來發現現代漢語所具有的獨特的“體”的特徵，我們需要這樣的努力。

關鍵詞：達成類型、未完成體標記、預備階段、在、be -ing、-고 있-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3. 9. 30.	2013. 11. 4.	2013. 11. 15.	2013. 11. 26.	2013. 11. 30.